

우크라이나 최하영/김순희 선교사 2020년 4월 사역편지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보다 한달 지나 3월에서야 코로나 19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탈리아에 들어온 우크라이나인이 첫 확진자가 생기면서, 4월 7일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 1,500여명과 사망자 50여명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예측은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하나님만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분(시편 91:3)이 십니다.

강의 및 집회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오시기로 했던 3, 4월 손님들은 모두 취소한 상태입니다. 항공편과 숙소들을 취소 중인데, 환불불가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환불받으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니깅 문화부로부터 예배를 온라인으로 권고하여 벌써 2주째 줌(Zoom)을 통해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오래 전에 한번 나왔던 나탈리야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적도 생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로 통해 더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구절 및 격려편지, 카드, 말씀 등을 카카오톡과 같은 바이브르(Viber)를 통해 영적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유료 광고로 찬양을 올려 연결된 교회 주변 20여명에게 전도를 위해 상담 중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5일만 광고했는데, 접촉한 사람은 3,00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상담에 유라 전도사와 유다 집사도 전도를 위한 상담자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된 것은 파송교회인 명지대학교교회 성도들께서 2번에 걸쳐 약 25대 정도 주신 덕분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 리더들에게 주었고 2차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의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줄 때 일일이 세팅을 해 주고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바이브로를 통해 소통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잘 사용하던 귀중한 스마트폰을 기꺼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키예프 장로교회 이반목사(세번째)와 화요일기도회

체르니깅교회를 우크라이나 장로교단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장로교단은 1991년 독립후 미국장로교회와 화란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복원시켰습니다. 이 교단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73년간 공산치하때에 핍박으로 인해 거의 사라졌었는데 현재 복원하여 우크라이나에 30여 장

로교회와 장로교신학교가 있습니다. 저가 2011년에 우즈베키스탄에 우크라이나로 재배치되어 처음 섬겼던 교단이었습니다. 이제 장로교 신학교에 다니다 형편이 어려워 신학교 휴학 중인 유라(43세, 미혼)를 체르니집교회 전도사로 청빙했습니다. 유라 전도사는 20대부터 전도 활동을 해 왔었고, 이미 2군데 신학교(총 7년)를 다녔지만 아직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체르니집교회에 와서는 직업을 갖지 않고 온전히 사역자로 섬기길 원해서 교회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저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르니집교회 내에 한글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할 장단기 한글교사가 체르니집교회로 파송되길 기도합니다.

2월에 웨(WEC) 국제선교단체 대표 유병국 목사 내외분의 방문으로 인해 전에 순회사역하며 섬겼던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까주잔까교회를 방문했는데, 알렉 목사는 저의 가르침에 따라 가정교회 3개를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중심으로 9월 리더십학교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면 우즈베키스탄에 갈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신학교 강의 등을 할 예정입니다. 저가 돌아볼 지하신학교는 4곳입니다(신학교 책임자: 바뵐, 알렉, 노디르, 정선생). 이 신학교들의 학생들이 이슬람 땅 곳곳에 흩어져 가정교회들을 개척하길 원합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저의 책 『실크로드를 따라 유목민에게 나타난 천년의 교회 역사』(한국학술정보, 2007)을 중심으로 '유럽 크리스찬신문'(발행인 이창배)에 '실크로드&복음루트(Silkroad & Gospelroute)란에 기고했던 것을 다시 묶어 책으로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유라전도사와 체르니집교회 어린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전파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들 지역이 이슬람과 힌두교, 불교로 뒤덮여있지만, 다시 복음으로 푸르러질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생활하는 근원이가 90년생으로 올해는 꼭 믿음의 자매 만나 결혼했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근석이도 92년생으로

원하는 곳에 꼭 취직되어 안전된 생활을 하길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최하영/김순희 선교사 2020년 4월 기도제목

1. 코로나 19가 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재 온라인 예배때마다 성령의 기쁨을 부어 은혜충만 믿음충만하게 하옵소서
2. 체르니깁교회에 새로 부임한 유라 전도사가 저와 잘 동역하여 부흥시키게 하옵소서. 이를 지원할 단기팀을 보내 주소서.
3. 체르니깁교회 전도 접촉점을 위해 한류(한글교육 등)를 사용하게 하시며, 이를 위한 장단기 헌신자를 보내주소서.
4. 까주잔까교회의 3개 그룹 리더들(알렉, 위팔릭, 알라)이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9월에 있을 리더십세미나도 잘 진행되게 하소서
5. 우즈베키스탄 찰힌교회(바벨)와 고려의료서비스병원, 지하신학교 책임자들인 바벨과 알렉, 노디르, 정선생, 가정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6. '실크로드의 복음루트'책이 잘 발간되게 하소서
7. 내년에 있을 제21차 CIS한인선교사대회(2021.6.7~11)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8. 근원이 결
혼과 근석
이 취직이
잘 되게
하소서
9. 후원하는
교회와 성
도들이 주
님안에서 큰 은혜를 입게 하소서
10. 최하영/김순희 선교사가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사역하며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까주잔까교회 알렉 목사와 안나, 알라, 위팔릭



키예프 침례교 목회자 목요조찬기도회